

'길'잃은 광주 '全州城'에서 활로 찾아라

'4연패' 광주對 '6전 무승' 전북...내일 벼랑끝 대결

"골 넣은 축구로 전북 원정 징크스 깬다"



광주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북현대와 하나은행 K리그 2024 7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두 팀의 대결은 말 그대로, 벼랑 끝 승부다. 패조의 2연승 후 충격의 4연패를 당한 광주는 최하위 전북을 잡고 반등을 노린다. 개막 후 6경기째 무승에 그치며 '감독 교체'라는 초강수를 둔 전북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객관적 전력으로 광주의 열세다. 전북 원정에서 2015년 이후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던 데다 센터 라인을 이루는 주전 GK 김경민, 주전 센터백 안영규, 포포비치가 모두 결장한다. 하지만, 이정호 감독은 한 골 먹히면 두 골 넣는다

K리그 광주FC가 전북 원정에서 승점 3점을 위해 달린다. 광주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북현대와 하나은행 K리그 2024 7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는 각으로 경기에 임한다. 지난 김천과의 경기 후 "몇 연패를 하더라도 골을 넣는 축구"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경기 교체 출전해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준 아사나와 2경기 연속 합작 골을 기록 중인 가브리엘과 이희균의 콤비 플레이도 기대할 만하다.

그리고 점차 출전 시간을 늘리며 데뷔골을 정조준한 빅토르 또한 실점 많은 전북 수비진을 공략하기 위해 대기중이다. 전북은 박진섭·송민규·김태환·김진수·문선민 등 포지션마다 대표급 선수들이 즐비하다. 안방인 전주성에서 심기일전해 연패를 끊겠다는 각오다.

리그 개막 후 무실점 경기가 단 한 차례도 없던 수비 조직과 경기를 진두지휘할 사령탑이 없는 큰 변수가 있지만 지난 경기부터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기존 공격 패턴을 버리고 이영



지난 6일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광주FC와 김천상무 경기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기대를 모은 광주FC 빅토르. <광주FC 제공>

재, 전방관 등 빠르고 기술 좋은 선수들을 선발 출장시켰다. 역습 상황에서 가공할 만한 위력을 발휘하는 문선민과 송민규가 광주가 전북 원정 징크스를 깨고, 전북 현대를 잠재로 밀어내면서 재도약할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희중 기자

솔을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에 절대 강자는 없다. 징크스는 깨지라고 있는 법이다. 이정호 감독 부임 후 첫 4연패를 맞은 광주가 전북 원정 징크스를 깨고, 전북 현대를 잠재로 밀어내면서 재도약할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희중 기자



지난 10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LG의 경기. 관중석을 가득 채운 KIA팬들 응원 모습. <KIA 타이거즈 제공>

시작부터 타고투저

작년보다 홈런 1.6배 폭증...ABS·피치클록 등도 영향



올 시즌 프로야구에 불고 있는 타고투저 현상이 심상치 않다.

2024 KBO리그는 10일까지 총 75경기를 치른 가운데 141개의 홈런이 나왔다. 경기당 홈런 수는 1.88개로 예년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치다. 지난해엔 시즌 초반 73경기에서 83개의 홈런이 나와 경기당 홈런 1.14개를 기록했다. 2022년 시즌 초반 73경기에서는 73홈런, 경기당 홈런 1.00개가 나왔다.

올해 홈런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6배, 2년 전보다는 1.88배로 늘어난 셈이다. 리그 타율, 리그 평균자책점도 예년과 큰 차이를 보인다. 10일 현재 올해 KBO리그 평균 자책점은 4.82로 2023년과 2022년 같은 시기보다 크게 높아졌다. 지난해엔 4.13, 2022년엔 3.39였다. 리그 타율은 올해 0.270으로 지난해(0.258), 2022년(0.241)보다 상승했다. 리그 타고 투저 현상이 짙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다. /연합뉴스

현장에서선 KBO리그 단일 경기 사용구(공인구)의 반발계수가 높아진 것이 타자들의 장타력 향상에 영향을 줬다고 본다.

KBO가 지난 달 발표한 수시 검사에 따르면, 올해 공인구 평균 반발계수는 0.42028로 측정됐다. 2023년(0.4175), 2022년(0.4061)·이상 3·4월 수시 검사 기준)보다 뚜렷하게 높다. 반발계수가 높으면 타구의 비거리가 늘어나고 타구 속도가 빨라져 안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한국야구위원회(KBO)는 "공인구 검사는 전량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모든 것을 대변하진 않는다"라며 "아울러 KBO는 올해 공인구의 반발계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장에서선 타고투저 현상의 이유를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한다. 올해 KBO리그에 도입한 자동 투구 판정시스템(ABS)과 시범 운용 중인 피치 클록, 그리고 베이스 크기 확대와 수비 시프트 금지 등이 투수들에게 불리한 환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연합뉴스

순천시청 양궁 선수현, 파리行 '명중'

광주여대 오예진·광주은행 최미선, 올림픽 진출 무산

생애 첫 태극마크를 단 남수현(19·순천시청)이 파리올림픽 출전 티켓까지 거머쥐었다. 올해 순천시청에 입단한 실업새내기 남수현은 11일 경북 예천 진호양궁장에서 열린 2024 양궁 국가대표 최종 2차 평가전에서 3위를 차지하며 파리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했다. 지난해까지 국가대표 후보선수였던 남수현은 국가대표가 아닌 국가대표 예비군으로 경쟁한 선배들을 제치

며 올림픽에 직행하는 파란을 일으켰다. 여자부 1위는 1-2차 평가전을 1위로 통과한 임시현(21·한체대), 2위는 전훈영(30·인천시청)이 차지했다. 임시현, 전훈영, 남수현은 모두 파리에서 생애 첫 올림픽에 도전하게 됐다. 1차 평가전을 2위로 통과하며 기대를 모았던 '베테랑' 최미선(광주은행 테넨양궁단)은 2차 선발전에서 난조를 보이며 이번의 회생안이 됐고, 오

예진(광주여대)은 2차 평가전에서 2위로 뛰어오르는 뒷심을 보여줬지만 '1차 선발전 7위'를 뒤집기는 역부족이었다. 오예진은 이날 마지막 한발까지 선전을 펼치며 역전드라마에 도전했으나 아쉽게 4위에 머물렀다. 남자부에서는 김우진(27·청주시청), 이우석(27·코오롱엑스텐보이즈), 김제덕(20·예천군청)이 각각 1-3위를 차지했다. 김우진은 리우, 도쿄올림픽에 이어 3연속 올림픽 진출을 확정지었다. /박희중 기자



생애 첫 태극마크를 달고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순천시청 남수현. <순천시청 제공>

배우 류준열, 파3 콘테스트 김주형 캐디 '깜짝 변신'



11일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린 파3 콘테스트에 올해 마스터스 출전자 김주형의 캐디로 나선 배우 류준열이 6번 홀에서 퍼팅 후 모자를 던지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토틸 손흥민, 3번째 '10골-10도움' 정조준

내일 뉴캐슬 원정 출격...4위 수성 '선봉'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틸의 '캡틴' 손흥민이 4위 수성을 위해 중요한 일전에서 뉴캐슬의 골문을 노린다. 토틸은 13일 오후 8시30분부터 영국 뉴캐슬의 세인트제임스 파크에서 뉴캐슬과 2023-2024 EPL 33라운드 원정 경기에 나선다. 토틸은 이번 시즌 승점 60(골 득실 +20)을 쌓아 EPL 4위를 달리고 있다. 이번 경기 이후 아스널, 첼시, 리버풀 등 험난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어서 토틸은 이번 시즌 8위(승점 47)에 자리한 뉴캐슬을 상대

로 승점 30이 더 절실하게 느껴진다. 토틸은 지난해 12월 16라운드에서 벌어진 뉴캐슬과의 시즌 첫 맞대결에서 4-1로 대승을 거둔 바 있는데, 당시 손흥민의 맹활약이 뒷받침됐다. 그 경기에서 손흥민은 후반 40분 자신이 연어번 페널티킥을 직접 차 넣어 시즌 두 자릿수 득점을 돌파했고, 도움 2개를 작성해 승리에 앞장섰다. 최근 리그 6경기에서 그는 대부분 풀타임을 소화하며 3골 3도움을 올리고 있다.

직전 노팅엄 포리스트와의 경기에선 후반 7분 마키 판더펜이 넣은 결승골의 도움을 작성하며 팀의 3-1 승리에 기여했다. 이를 포함해 손흥민의 올 시즌 리그누적 공격포인트는 15골 9도움이다. 특히 손흥민은 도움 하나만 추가하면 이번 시즌 골에 이어 도움도 두 자릿수를 돌파, 2019-2020시즌(11골 10도움), 2020-2021시즌(17골 10도움)에 이어 개인 통산 3번째 10골-10도움을 달성하게 돼 이 또한 관심이 쏠리

는 대목이다. EPL에서 시즌 10골-10도움을 3차례 이상 기록한 선수는 현재까지 웨인 루니(5회), 에릭 킵토나, 프랭크 램퍼드(이상 4회), 무함마드 살라흐, 디디에 드로그바(이상 3회)까지 총 5명으로, 손흥민이 6번째 주인공을 노리고 있다. /연합뉴스



"35대 1의 경쟁을 뚫어라"

세계기전 LG배 국내선발전 14일 개막

한국이 주최하는 세계기전 LG배가 이번 주말 국내예선을 시작한다. 제29회 LG배 조선훈보 기왕전은 14일부터 한국기원에서 국내 선발전이 열린다. 중국은 6명, 일본 3명, 대만 1명도 LG배 본선 24강에 합류한다. 1장인 와일드카드의 주인공은 추후 발표된다. 올해 LG배 본선은 내달 19일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개막식을 펼칠 예정이다. 한국은 이번 LG배 본선에 13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전기대회 우승·준우승자인 신진서·

변상일 9단을 비롯해 국내 랭킹 시드를 받은 박정환·신민준 9단, 국가대표 예비군 시드인 박건호·원성진 9단까지 6명은 본선에 직행한다. 중국은 6명, 일본 3명, 대만 1명도 LG배 본선 24강에 합류한다. 1장인 와일드카드의 주인공은 추후 발표된다. 올해 LG배 본선은 내달 19일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개막식을 펼칠 예정이다. 한국은 이번 LG배 본선에 13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전기대회 우승·준우승자인 신진서·

